

“정부 역량 총동원 사고 피해 최소화 대응”

중앙재난본부, 통합지원센터 설치해 유가족 지원
중앙부처 원인조사-지자체 현장 수습 역할 분담
광주시 7일간 애도기간…전남도 전담공무원 지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본부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무안 항공기 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를 위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조정관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전남도, 무안국제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 구조·구급은 소방청,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은 국토교통부, 피해자 가족 지원 등 사고 수습은 지자체에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조정관은 피해자 유가족 대거소 설치 및 일대일 전담 공무원 지정 등 통합지원센터도 조속히 운영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날 강기정 시장 주재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사고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명하고 적극 지원키로 했다.

강 시장은 회의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소식을 접한 즉시 현장에 다녀왔는데 처참했다”며 “사고 수습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사고기 탑승자 181명 중 광주에 주소지를 둔 탑승자는 81명(남 38명·여 43명)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구조·구급인력 차량을 현장 지원했으며 추후 희생자 가족을 위한 지원반을 시·구 합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는 사고 발생일부터 1월4일까지 7일간을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5·18민주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애도 기간에는 시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연말 연시 행사는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같은 날 오후 2

정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신속한 피해자 신원 확인과 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대형 사고가 전남에서 발생한 데 대해 도지사로서 참담하고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사고 직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신 수습, 빠른 신원 확인, 장례 절차, 합동 분향소 설치 운영 등”이라며 “피해자 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합동 분향소를 무안군과 함께 준비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뜻을 반영한 장례 절차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항에 마련된 실내 임시 안치소에 모셔 신원 확인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차원의 역할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분들의 요청 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무안군에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겠다”며 “당장 오늘부터 피해자 가족이 요청한 실시간 사고 수습 상황 브리핑, 신원 확인 현황판 작성 운영 등이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사후 수습은 정부와 함께 피해자 가족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는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하겠지만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 관계기관과 협조해 꼭 필요한 것은 미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합동 분향소는 무안스포츠타에 설치키로 했다.

/김진수·김재정·변은진 기자



항공기 폭발사고 대책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무안 망운문화복지센터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폭발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국내 역대 항공기 사고는…광 추락 이후 최악

1997년 광 참사 228명 사망·1993년 해남서 야산 충돌 66명 숨져
‘마의 11분’ 이·착륙서 사고 발생 빈번…기체이상·테러사고도

무안공항에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신속한 피해자 신원 확인과 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업계에서는 ‘이륙 후 3분·착륙 전 8분’을 ‘마의 11분’으로 부를 정도로 이·착륙시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이와 관련된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13년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 충돌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중국인 여학생 3명이 사망하고 181명이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났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15년에는 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던 활주로를 벗어나 비상정지하면서 승객 20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앞서 1988년에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목포공항에 접근하던 중 전남 해남의 야산에 충돌해 66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다쳤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충격을 준 대한항공의 1997년 8월 참사도 광 공항에서 착륙하던 중에 발생했다. 당시 미국 공 항 활주로를 바라보며 착륙을 시도하던 중 언덕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이 사고로 228명이 사망했다.

1999년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중국 상하이공항 이륙 직후 추락해 8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을 으며 1994년에도 대한항공 항공기가 제주공항 착륙 중 담에 충돌해 90명이 다쳤다.

1989년에는 서울에서 리비아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트리폴리 공항에 착륙하려다 추락해 80명이 사망하고 13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10월4일 김포국제공항에선 제주행 티웨이항공 항공기가 이륙 직후 기내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이륙 약 24분 만에 김포공항으로 회항해 비상 착륙했다.

또 지난 8월26일에는 제주에서 김포로 갈 예정인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 도중 기체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승객 171명이 2시간 넘게 기내에 갇혀있었다.

지난 1월10일에는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조류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서 불꽃이 튀어 공항 소방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기체 이상이나 테러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1987년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테러로 115명이 사망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1년 7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가 제주도 해상에 추락해 승무원 2명이 사망했고, 1999년 12월에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영국 스텐스테드 공항 인근에서 추락해 승무원 4명이 숨졌다.

역대 여객기 항공 사고 가운데 최대

의 인명 피해를 낸 것은 테네리페 공항 참사다.

1977년 팬암항공과 KLM 소속의 보잉 747기 2대가 스페인의 테네리페 공항서 충돌하면서 58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연합뉴스

국내 항공기 주요 사고 일지

1971년 1월23일	대한항공 F-27 이륙 후 강원 고성에서 피랍돼 비상착륙, 2명 사망·26명 부상
1976년 8월 2일	대한항공 B707 이란 테헤란 공항 이륙 후 산악 추락, 5명 사망
1978년 4월21일	대한항공 B707 소련 무르만스크에서 항로 이탈로 피격돼 비상착륙, 2명 사망
1980년 11월19일	대한항공 B747 김포공항에서 착륙 중 뒷바퀴 부러져 동체 활주, 16명 사망
1981년 9월15일	대한항공 B747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이륙 중 철책 충돌, 24명 부상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B747 소련 캅차카 근해에서 격투기 피격, 269명 사망
1987년 11월29일	대한항공 B707 미얀마 안다만해상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폭파, 115명 사망
1989년 7월27일	대한항공 C10 리비아 트리폴리공항에서 착륙 중 지상충돌 80명 사망·139명 부상
1989년 11월25일	대한항공 F28 김포공항 이륙 중 지상충돌, 1명 사망
1993년 7월26일	아시아나 B737-500 전남 해남에서 공항 접근 중 산에 충돌 66명 사망·44명 부상
1994년 8월10일	대한항공 A300-600 제주공항 착륙 중 담장 충돌해 화재, 9명 부상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B747-300 미국 광공항 착륙 중 야산 추락, 225명 사망·29명 부상
1999년 4월15일	대한항공 MD-11 중국 상하이공항 이륙 직후 추락, 8명 사망·41명 부상
1999년 12월23일	대한항공 B747-200 영국 스텐스테드공항 이륙 후 추락, 4명 사망
2011년 7월28일	아시아나 B747-400 화물기 제주 해상 추락, 조종사 2명 사망
2013년 7월 7일	아시아나항공 B777-200 여객기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충돌 2명 사망, 181명 부상
2024년 12월29일	제주항공 B737-800 여객기 전남 무안국제공항 착륙 중 활주로 끝 담장과 충돌. 탑승자 181명

연암뉴스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친 환 경 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염색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공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